

• 국어 영역 •

정답

1	④	2	①	3	⑤	4	③	5	②
6	④	7	①	8	③	9	③	10	④
11	④	12	⑤	13	②	14	①	15	①
16	①	17	③	18	⑤	19	①	20	⑤
21	②	22	②	23	③	24	③	25	③
26	⑤	27	③	28	②	29	④	30	②
31	⑤	32	②	33	②	34	⑤	35	②
36	②	37	④	38	⑤	39	⑤	40	③
41	②	42	③	43	⑤	44	④	45	①

해설

[1~3] 화법

1.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 파악하기

학생의 발표 도중 말한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질문을 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② 1문단과 2문단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네'라고 답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고, 1문단에서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비언어적 표현)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③ 3문단, 4문단, 5문단에서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와 같은 담화 표지를 사용해 '좋은 웹 페이지 제작을 위한 고려 사항'에 대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청중에게 익숙한 학교의 웹 페이지 사진을 보여 주어 청중이 배경지식을 환기하며 듣도록 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의 맥락을 고려한 매체 자료 활용하기

발표자는 웹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청중에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 자료를 보여주었다. 문맥을 고려했을 때 이 예시 자료는 발표 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좋은 본보기여야 한다. 문서의 제목과 소제목은 본문의 글자 크기보다 크고 굵고 진하게 적혀야 하고, 제목과 본문의 서체를 구분함이 바람직하다는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제목의 크기는 본문 글자보다 크지만 굵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에 돋움체를 쓰거나 자간이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등 좋은 본보기로서 적합하지 않다.

③ 본문의 글자 크기가 제목과 비슷할 정도로 크고, 굵게 표시되어 있어 문서의 제목이 본문 글자 크기의 1.8배 ~ 2.2배 가량 되어야 한다는 발표 내용과 어긋난다.

④ 제목과 본문의 글자 크기 및 서체가 같아 중요 정보인 제목이 강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시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

⑤ 제목과 본문의 글자 크기가 같아 중요 정보인 제목이 강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시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

3. [출제의도] 청자의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은 발표를 듣고 웹 페이지에서 글자를 제외한 매체 자료들을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자가 밝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좋은 웹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글뿐만 아니라 그림, 음악,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매체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묻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다.

[오답풀이] ① 웹 페이지를 잘 디자인해야 하는 이유는 발표의 첫 번째 문단에서 이미 밝혔으며,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에 관한 질문과 거리가 멀다.

② 세 번째 문단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돋움체로 작성한다거나, 네 번째 문단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글의 크기와 굵기를 조절하면 된다는 정보는 이미 발표자가 제시한 내용이다. 또한 글자를 제외한 요소들의 디자인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도 볼 수 없다.

③ 세 번째 문단에서 바탕체를 사용해 사용자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음을 이미 밝혔다. 또한 글자를 제외한 요소들의 디자인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도 볼 수 없다.

④ 웹 페이지에 넣을 그림, 음악, 동영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질문은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에 관한 내용과 무관하다.

[4~7] 화법/작문

4. [출제의도] 회의 사회자의 역할 파악하기

회의 전체 내용에서 학생회장이 참여자의 발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학생회장은 첫 번째 발언에서 이전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② 학생회장은 두 번째 발언에서 자원봉사 활동 일시 및 장소에 대한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④ 학생회장은 첫 번째 발언에서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⑤ 학생회장은 네 번째 발언에서 임원 1의 의견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 파악하기

[B]에서 임원 3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횡단보도 보행 실태를 언급하며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임원 3은 임원 2의 의견을 수용하며 자원봉사 활동 시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③ [C]에서 임원 1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임원 3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④ [D]에서 봉사활동 지원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메일로 제출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⑤ [E]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안의 장점을 언급하여 임원 1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6. [출제의도] 자료의 수정 방안 이해하기

학교 홈페이지에 봉사활동 지원서 서식을 탑재할 계획이라는 학생회장의 발언을 통해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라고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밝히자는 내용이 ㉠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② 정문과 후문 모두 자원봉사 활동 장소로 안내하자는 내용이 ㉡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③ 횡단보도 신호 준수 홍보를 캠페인 활동에 포함하고 공고문의 자원봉사 활동 내용에도 안내하자는 의견이 ㉢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학생회에서 면접으로 선발하자는 내용이 ㉣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문구 작성하기

① '무단횡단을 하면 위험하다'라는 의미로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수칙 지키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문구이다. 그리고 '땀땀땀', '성큼성큼'과 같은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였다.

[오답풀이] ③ '도란도란'이라는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였지만, 교통안전과 관련이 없는 문구이다.

②, ④, ⑤ 교통안전과 관련이 있는 문구이지만,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지 않았다.

[8~10] 작문

<출처: 2018, 2019년 한겨레 신문 기사 외>

8.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판단하기

다운 소재의 제조 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초고에 나와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초고의 첫 문단에서 패딩 한 벌을 위해 확대당하는 거위의 숫자와 그 숫자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은 반영된 내용이다.

② '다운 패딩, 비거니즘, RDS,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요 용어의 뜻을 각주에서 풀이해 주고 있으므로 ㉡는 반영된 내용이다.

④ 초고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비건 패션에서 동물성 소재를 합성 소재로 대체하는 내용이 나오므로 ㉣는 반영된 내용이다.

⑤ 초고의 세 번째 문단에 또 다른 개선 방안으로 업사이클링을 택하기도 한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는 반영된 내용이다.

9.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의 경우 '거위들이 털을 뜯긴다'는 피동 표현이 적절한 상황이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

[오답풀이] ① 본문 내용은 비건 패션과 윤리적 의류 구입에 관한 것이므로 ㉠의 '식생활 개선'이란 부분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자는 내용으로 부제를 고쳐야 한다.

② '~과'로 연결된 앞뒤 어구가 대등하지 않으며, 앞부분의 서술어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상품의 질감을 좋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라고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현재 ㉣의 앞에 '비건 패션'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 그 부연 설명이 ㉣의 뒤에 위치해 있다. 이 둘을 바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과 같이 합성 소재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2문단의 내용은 다운 의류를 사지 말자는 의도이므로, 3문단 첫 문장에서처럼 다운 의류를 살 경우에 대해 언급하려면 '그래도'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0.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의 표에는 다운 소재와 대비되는 합성 소재의 장점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합성 소재의 단점을 소개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할 것을 유도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 제시된 기사들을 통해 청소년이 많이 입는 패딩의 소재가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얻는 것일 수 있음을 서론에서 밝히며 문제 제기할 수 있다.

② 초고의 서론 내용을 본문의 첫 문단으로 옮기고 ㉢-1을 함께 제시하여 거위 학대의 실상을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2에 언급된 'RDS(윤리적 다운 제품 인증)'마크와 그 기준을 안내하며 이를 획득한 의류를 구입하자고 권할 수 있다.

⑤ ㉢에 '업사이클링'의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동물과 환경을 위해 업사이클링 의류를 구입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11~15] 문법

11. [출제의도] 시간 표현의 문법 요소 탐구하기

시간 부사 '어제'와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잔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ㄴ-'이 쓰였다. 현재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이다.

② '잔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ㄴ-'이 쓰였으나 관형사형 어미는 찾을 수 없다.

③ 시간 부사 '어제'와 '봤다'에 쓰인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을 통해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것은 현재 시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내리겠습니다'에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이 쓰였고, '곧'이라는 시간 부사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

고 있다. 미래 시제는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인 시간 표현이다.

12. [출제의도] 시간 표현의 다양한 표현 효과 파악하기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은 대체로 과거 시제를 표현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에서와 같이 ‘어머니께 혼나는 일’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 그것을 마치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표현할 때에도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을 사용하기도 한다.

[오답풀이] ①, ②, ④ ‘-았-/-었-’이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③ 본문의 ‘-았-/-었-’이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13. [출제의도] 형태소의 유형과 특징 파악하기  
명사 ‘경찰’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에는 ‘예’라는 답이 적절하다. ‘을’은 조사로서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므로 ㉡에는 ‘아니요’라는 답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잡-’은 용언의 어간인데, 홀로 쓰이지 못하지만 ‘달아나지 못하게 하다’라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다. 따라서 ㉢에는 ‘예’라는 답이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된소리되기 현상에 적용된 표준 발음법 이해하기

표준 발음법 제23항부터 26항까지는 된소리되기의 환경을 다룬다. ‘웃고름’은 ‘웃[으]’의 ㄷ(ㄴ) 받침 뒤에 연결되는 ‘고름’의 1음절 첫소리 ‘ㄱ’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젊고’는 어간 ‘젊-’의 받침 ‘ㄹ(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 ‘-고’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이므로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문고리’는 표준 발음법 제23항부터 제25항의 어느 것으로도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제28항 참고).

③ ‘갈등[갈똥]’은 표준 발음법 제23항부터 제25항의 어느 것으로도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제26항 참고).

④ ‘인짱개[인짱개]’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⑤ ‘술잔[술잔]’은 제23항부터 제25항의 어느 것으로도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제28항 참고).

15. [출제의도] 담화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 조절하기  
높임 표현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및 의도, 사회문화적 상하 관계, 이야기 장면과 같이 담화 상황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①과 같이 문장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될 때 주격조사 ‘가’를 ‘께서’로 고쳐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풀이] ② 부사격조사 ‘께’는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③ ‘주시는’의 ‘-시-’는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은 문장의 객체이므로 ‘드리는’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보셨어’에 포함된 형태소 ‘-시-’는 주체를 높이는 표현으로, ㉡과 같은 문장의 객체를 높일 때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보기>의 문장에서 서술어 ‘보았어’의 주어는 화자인 ‘나’이다. ‘보셨어’는 화자인 자기 자신을 높이는 표현이다.

⑤ ‘보았습시다’는 대화 상대방(듣는이)을 높이는 표현이므로, 문장의 객체를 높일 때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16~20] 독서(과학)

<출전> grotzinger 외 3명 저, 조석주 외 10명 옮김, 「지구의 이해(understanding earth) 제 5판」

개관: 이 글은 19세기 층서학을 통한 지질학적 시간척

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통해 암석의 절대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논지 전개 방식 파악하기

4문단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원자핵의 구성 물질인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한 세부적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과정 설명에서 유추의 진술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지층 연대 측정 방법의 발전 과정을 설명할 때 분류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지질학적 시간 척도의 특징 설명에 전문가의 의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1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5문단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 따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은 불안정하여 붕괴된다고 밝히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질소-14의 원자핵은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상대적인 척도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⑤ 4문단에서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18. [출제의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모원소의 개수가 줄어든 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소와 모원소의 개수를 더한 값이 감소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오답풀이] ① B는 시간에 따른 자원소 함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② 암석 S는 반감기를 두 번 거쳤기 때문에 생성 시기는 4억 년 전이다.

③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처음 A의 양은 1/16으로 줄어든다.

④ 그림에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1로 같아지는 시기는 2억 년이다.

19.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①의 문맥적 의미는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 내다’의 의미이므로 ①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하다.

[오답풀이] ②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의 의미이다.

③ ‘무엇을 시작하거나 흥성하게 만들다’의 의미이다.

④, ⑤ ‘일어나게 하다’의 의미이다.

20. [출제의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보기>에서 질소-14는 기체라서 죽은 생물체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질소-14의 양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므로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소-14의 양만 알아서는 생물이 죽은 연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탄소-14는 죽은 생물체 내에서 6만 년이 지나면 매우 제한된 양만 남기 때문에 탄소-14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의 측정 범위는 제한적이다.

② 방사성 붕괴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14의 개수가 줄어든다.

③ 죽은 생물체 안에서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 탄소-14의 양이 줄어든다. 따라서 죽은 생물 내의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은 변화가 일어난다.

④ 생물체가 살아있을 때는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탄소-14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은 살아있는 생물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21~25] 독서(사회)

<출전> 장영재, 「경영학 콘서트」

개관: 이 글은 2002년 월드컵에서 스포츠 브랜드 업체보다 모조품 제작 및 판매 업체들이 티셔츠 판매에서 큰 이득을 본 사례를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채찍 효과의 원인으로 수요의 왜곡, 대량 주문 방식, 발주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 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스포츠 브랜드 업체들과 모조품 제작 및 판매 업체들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21.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모조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수익을 본 현상을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론은 소개하고 있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③ 역사적 변천 과정은 없다.

④ 사회 현상의 원인에 대한 대립적 의견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사회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지도 않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지도 않는다.

22.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의 아기 기저귀 업체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하지만 소매점과 도매점의 수요가 들쭉날쭉하다고 했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는 주문 변동폭은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한다고 했다.

③ 3문단에 보면 변동폭이 크면 계획이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워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반기지 않는다고 했다.

④ 5문단에서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을 요하고 이것 때문에 재고량 증가가 나타나며, 결국 이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⑤ 6문단에서 물건을 주문했다고 바로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 이유로 주문 처리 시간과 물류 이동 시간을 들고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윗글의 4문단에는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채찍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윗글의 5문단, 6문단에서는 채찍 효과로 인해 재고량이 증가되었다고 말한다. 재고량 증가는 기업 수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적정 재고량을 유지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② 윗글 2문단에서 브랜드 업체의 문제 상황은 공급 사슬망의 핵심을 설명하는 사례라고 소개하고 있다.

④ 마지막 문단에 보면 재고 관리 비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재고 관리 비용이 수익보다 적다면 당연히 스포츠 브랜드 업체들은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다.

⑤ 윗글의 6문단에서는 발주 실행 시간이 길수록 채찍 효과가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스포츠 브랜드 업체들은 발주 실행 시간이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윗글에서 채찍 효과는 재고량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기>에서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로 인해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주문량이 많다.

[오답풀이] ① 윗글에서는 재고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보기>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② 수요의 왜곡 현상은 윗글에서는 결국 재고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보기>에서 불확실성의 전이는 추가 주문과 추가 공장 가동과 같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공급 사슬망의 개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④ 윗글에서는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수요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도 최종 소비자의 갑작스러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 계획에 없던 불확실성이 전달된다고 하였다.

⑤ 윗글 4문단에서는 앞으로의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심리로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한다고 하였다. <보기>의 소매점과 도매점은 수요 증가로 인해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기존 수요량과 비교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주문부터는 주문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2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CPFR은 두 회사 간에 판매, 재고, 생산 계획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과잉주문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오답풀이] ① B통신사가 A전자의 휴대폰을 항상 대량 주문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요에 맞게 소량 주문할 수도 있고 대량 주문할 수도 있는 것이다.

② CPFR은 재고량 최소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재고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④ CPFR 프로그램을 통해 공장을 이전한다는 말은 언급이 안 되어 있다.

⑤ <보기>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많다고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재고량을 최소화하여 돌발적인 수요 변화에 잘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26~28] 문학(고전소설)

<출전> 작자 미상, 「영영전」

개관: 이 작품은 회산군의 궁녀인 영영과 선비인 김생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그린 애정소설이다. 「상사동기」, 「회산군전」으로도 불리는 「영영전」은 영영과 김생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2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김생이 영영을 그리워하는 장면에서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를 활용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끊어진 거문고’, ‘깨어진 거울’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③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한 영웅적 면모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순행적 구성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27.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김생의 친구인 정자는 김생에게 병문안을 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있으며, [B]에서 정자는 자신의 고모인 회산군 부인에게 영영을 김생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정자는 김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있으나, [B]에서 정자는 회산군 부인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있지 않다.

② [A]에서 정자는 김생을 칭찬하고 있지 않으며, [B]에서 정자는 회산군 부인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지 않다.

④ [A]에서 정자가 김생에게 하는 위로는 공감으로 볼 수 없고, [B]에서 정자는 회산군 부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

⑤ [A]에서 정자는 김생에게 충고를 하고 있지 않으며, [B]에서 정자는 회산군 부인에게 자신의 친구인

김생을 소개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회산군의 궁녀라는 영영의 신분은 영영과 김생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따라서 회산군 부인의 투기가 김생과 영영 사이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궁녀인 영영이 궁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대목을 통해 조선 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노파가 회산군 부인에게 영영을 외출시켜 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김생이 영영을 만나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파도 김생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영영을 밖으로 불러내어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김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김생이 영영과 사랑을 이루어 평생을 함께 보냄으로써 사랑을 성취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9~32] 문학(현대시)

<출전> (가) 정현중, 「초록 기쁨-봄숲에서」 / (나) 김영랑, 「오월」

개관: (가)는 햇살이 가득한 봄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햇살, 초록잎의 나무, 흙 등의 자연물을 통해 봄숲에서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나)는 오월의 봄을 배경으로 화자가 바라본 자연 정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바람, 보리, 피꼬리, 산 등의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봄날의 정감을 나타내고 있다.

29.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바르게 이해하기

(가)는 봄숲을 배경으로 해가 웃고 흙이 싱글거리는 자연의 모습을 의인화하고, 화자와 자연과의 교감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보리나 산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고, ‘산봉우리아 오늘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이 잘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는 자연 그 자체를 다루며, 삶의 교훈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와 (나)는 현실과 이상의 대비는 물론 이상에 대한 염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는 과거의 시간이 나타나지 않으며, 삶에 대한 반성의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에 대한 소외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30.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반어적 표현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로 나타내는 것인데, (가)에서는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상반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쉽표를 여러 번 사용하여 호흡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③ ‘향기’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시각적 이미지와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대상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2연의 ‘해여, 푸른 하늘이여’, 4연의 ‘오 이 향기’에서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31.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이해하기

㉠의 ‘해’는 화자에게 ‘출렁거리는 빛’, ‘초록의 샘’으로 인식되는 대상이다. 또 해가 웃는다고 인식한다.

㉡의 ‘산봉우리아’는 시에서 곱게 단장한 여인의 모습으로 의인화되고 있다. ‘산봉우리아 오늘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에서 화자는 밤이 되면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곧 ㉠와 ㉡는 화자가 관심을 갖고 주관적으로 인식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32.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나)의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의 주체는 흙으로, ㉠은 대지의 넉넉함과 향기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 ‘왕관’은 햇살이 나무와 꽃에 비치는 시각적 형상과 관련 지어 표현한 것이다.

③ ㉡: 코로 하늘과 나무들의 향긋한 향기가 전해지는 것을 직유법을 구사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 붉은 마을 길을 따라 펼쳐진 푸른 들판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진다는 것은 보리밭 이랑 사이로 햇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33~36] 문학(현대소설)

<출전>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개관: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는 어른이 된 서술자가 유년을 보냈던 동네를 방문하여 재개발 현장에서 어릴 적 사건을 회상하고, 사라져 가는 마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성장 소설이다.

33.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작품 속에 주인공인 ‘나’가 등장하여 서술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오답풀이] ① 부분적으로 대화 장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술자의 심리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③ 소설 내화, 외화를 넘나드는 형식은 액자소설 구성이다.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이 아니다.

④ 주변 인물이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 주인공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⑤ 작품 밖에 서술자가 위치하여 직접 심리를 묘사하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의미한다.

34. [출제의도] 주인공의 심리 파악하기

㉠의 소설 문맥 전후를 살펴보면 주인공이 생각했던 상황과 다르게 돌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나타난다. 단지를 깨고 가출한 주인공은 어른들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출 후 집 안의 상황은 주인공이 없이도 무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혼돈스럽고 불안한 상황에서 우는 나의 모습이 연출된다.

[오답풀이] ①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운 것이지, 어른들이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이 고마워 울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계절의 배경과 마을의 쓸쓸한 저녁 배경으로 인해 운 것이 아니다.

③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 슬퍼한 것은 아니다.

④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분노감을 느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5. [출제의도] 사건에 따른 주인공의 심리 이해하기

주인공은 주문을 외운 후, 깨진 항아리를 숨길 묘안을 찾아서 기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욕쟁이 할머니의 단지를 깬 후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현정이 아빠와 대화하기 전에는 의기양양함을 찾기 어렵다. 깨진 단지 조각을 들키지 않고 숨기려는 초조함, 긴장감을 살펴볼 수 있다.

④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을 보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⑤ 예상치 못했던 집안 분위기에 혼돈스러워 하던 ‘나’는 엄마가 불을 끄집자 그제야 안도감을 느낀다.

36. [출제의도] 조건을 활용하여 작품 분석하기

‘성장 소설’의 <보기> 지문을 활용하여 본문과의 대응 관계를 찾아보는 문항이다. 눈을 굶어 모으고 깨진 단지를 눈사람 속에 집어넣는 은폐 과정에서는 내면적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미성숙한 어린 화자가 ‘깨진 단지’ 사건을 계기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③ ‘방학 숙제로 낼 일기’는 어린 시절의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나를 둘러싼 세계’는 미성숙한 세계에서 정신적 성장으로 가는 공간이다.
- ⑤ ‘그렇게 컸다’는 성인의 시절을 의미하는 구절에 해당된다.

[37~41] 독서(인문)

<출전> 소홍렬, 「논리와 사고」

이 글은 고전 논리학에서 일상 언어를 논리적 의미가 분명하도록 고치는 명제의 표준 형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일상 언어의 문장들은 읽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논리적 의미가 다르므로 먼저 적절한 해석을 한 후 그것에 맞는 형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2문단에서 명제의 양을 전체와 부분으로만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부분에 관한 명제들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는 고전 논리의 한계점이라고 하였다.

[오답풀이]

- ① 5문단에서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는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로 고쳐 쓸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3문단에서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를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체 긍정으로 읽게 된다고 하였다.
- ③ 2문단에서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의 표준 형식은 ‘모든 ~는 ~가 아니다.’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 ⑤ 6문단에서 일상 언어의 문장은 그것이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것이 많다고 하였다.

3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3문단에서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라는 명제를 사실의 서술로 보는 사람은 칼을 쓰는 사람들 중 일부분의 사람만 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것을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문장을 읽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논리적 의미가 다르다고 하였고, 6문단에서 사람마다 자기대로 타당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리학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6문단에서 일상 언어의 문장을 적절하게 해석한 후 그것에 맞는 표준 형식으로 고쳐 주면 된다고 하였으므로, 논리학에서 일상 언어를 표준 명제로 고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과도 인과 관계가 없다.

② 1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에서는 기본 명제를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2, 3, 4, 5문단에서 다양한 일상 언어의 문장들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일상 언어의 문장과 논리학의 문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과도 인과 관계가 없다.

④ 1문단에서 일상 언어를 네 가지 기본 명제 중 하나의 형식으로 고쳐 주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일상 언어의 문장을 기본 명제로 고친 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만, ㉠과는 인과 관계가 없다.

39. [출제의도] 비판적 추론하기

1, 2문단에 나타나 있듯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는 표준 형식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문제의식이 투

철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만 긍정하므로, ‘참석한 모든 사람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②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만 긍정할 뿐 그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인지 어떤지에 대한 긍정은 없으므로,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③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만을 긍정하므로,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이 참석했다.’라는 것을 긍정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④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만 긍정하므로, 그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인지 어떤지에 대한 긍정은 없다는 판단은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경마’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할 수도 있으므로, ‘경마에 미친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은 경마이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에서 ‘원숭이’는 모든 원숭이가 아니므로, ㉡는 ‘어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이다.’로 고칠 수 있다.

② ‘소수의 사람들만이 특혜를 받았다.’는 모든 사람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④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그는 택시를 탄다.’에서 ‘날이면’으로 볼 때 ‘모든 날’이 되므로 ㉢를 ‘비가 오는 모든 날은 그가 택시를 타는 날이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피서지마다’는 ‘모든 피서지’를 뜻하므로, ㉣를 ‘이번 여름의 모든 피서지는 초만원이 이루는 곳이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은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들.’이란 뜻이다.

[42~45] 문학(갈래 복합)

<출전> 양사언 시조 / 김시습, 「사청사우(乍晴乍雨)」 / 이규보, 「이옥설(理屋說)」

개관: (가)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는 목표에 도전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나)는 세상 인정의 변덕스러움을 날씨에 빗대어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세상 인정이 한결같지 않아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꽃과 구름을 대하는 봄과 산처럼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순리대로 살아간다면 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다)는 퇴락한 행랑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치’로 확대 적용하여 해석한 설(說)이다.

42.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나)는 세상 인정의 변덕스러움을 비판하고 욕망을 버리고 순리대로 살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다)는 잘못을 알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세 작품은 모두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자신의 가치관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타인들이 살아갈 것을 충고하고 있다. (나)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② (가), (나), (다)는 모두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④ (가), (나), (다)는 이념과 현실의 갈등이 없다.

⑤ (가), (나), (다)는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43.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D]에는 청자를 설정하여 말하고 있으나, 문답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변덕스러운 날씨를 통해 세상 인정 역시 그러하다고 표현하며 세상 인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B]에서 ‘나를 기다다가 헐뜯고’, ‘공명을 피하다가 구하고’를 통해 대구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상 인정의 변덕스러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다.

③ [C]에서 가변적인 대상인 ‘구름’, 불변적인 대상인 ‘산’을 대조하여 ‘산’처럼 의연하게 살아야 한다는 화자의 의도를 전하고 있다.

④ [D]에서 7, 8구의 순서를 바꾸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내용 전개 과정 파악하기

설(設)은 두 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고, 후반부에서는 교훈을 전한다. 이옥설에서는 퇴락한 행랑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치’에 적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오답풀이] ① ㉠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과 ㉢은 상반되는 견해가 아니라 경험한 것을 사람의 몸에 적용한 것이다.

③ ㉠이 사건의 결과라 하더라도 ㉢은 그 원인이 아니다.

⑤ ㉠은 ㉢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한 것이다.

45.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비가 새기 시작한 것을 알았을 때, 미리 지붕을 고쳤다면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판단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과 어울림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③, ④, ⑤는 ㉡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으로 볼 수 없다.